

대동맥판 치환술의 임상성적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오정우 · 김광휴 · 나국주 · 안병희 · 김상형

본 교실에서 1986년 8월부터 1995년 6월까지 대동맥판치환술을 시행한 65례를 대상으로 임상성적을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1. 연령분포는 19세부터 68세였고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43세였고 성별 분포상 남녀의 비가 2.7:1였다.
2. 수술전 진단으로는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이 27례로 가장 많았고 동반된 심질환으로는 심실중격결손증이 5례, 발살바동맥류가 1례, 대동맥판하협착이 1례, 심근경색증이 1례 등이었다.
3. 수술에 사용된 인공판막으로는 St. Jude Medical판막이 44개로 가장 많았고 Duromedics판막이 22개, Bjork-Shiley판막이 2개, Carpenter-Edwards판막이 1개로 총67개가 사용되었다.
4. 수술중 심폐기 가동시간은 평균 161분이었고 대동맥 차단 시간은 평균 117분이었다.
5. 대동맥판막 치환시 동반된 수술로는 심실중격결손첨포봉합이 5례, 관상동맥 우회로조성술이 1례, 승모판막 교련부 절개술이 1례, 심막절제술이 1례, 발살바 동맥류 절제 및 첨포봉합술이 1례 등이었다.
6.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저심박출증이 8례, 부정맥이 5례, 출혈로 인한 재수술이 4례 있었고 판막 주변부 누출이 3례 있었다. 기계판막에 관련된 용혈이 1례 있었으나 회복되었고 항응고제와 관련된 합병증은 없었다.
7. 총사망률은 4례로 사망율은 7.7%였고 이중 병원사망은 3례로 5.8%, 만기사망은 1례로 1.9%였다.
8. 술후 추적관찰은 생존한 61례로 시행하였으며 평균기간은 65개월이었고 5년 생존율은 92.7%였다.
9. 술전후 NYHA 기능변화는 3에서 1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교실에서는 대동맥판치환술의 단기 및 중기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장기추적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